

2025년 1학기 해외연수보고서 (여행)

불어불문학과 2022131124 김가은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1학기에 리옹 7+1 연수를 다녀온 불어불문학과 김가은입니다.

저는 2번의 방학과 매주 주말, 정규과정과 속성과정 사이의 틈을 이용해 열심히 여행했습니다! 프랑스 외 10개국과 프랑스 내 11개 지역을 여행했는데, 좋았던 나라 위주로 여행 꿀팁과 주의사항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여행한 곳 목록입니다.

- **프랑스 국외:**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독일,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탈리아
- **프랑스 국내:** 안시, 그르노블, 샤모니, 스트라스부르, 콜마르, 보르도, 아르카송, 니스, 파리, 지베르니, 몽생미셸

<여행경비 기록>

학생이다 보니 여행 경비를 최대한 아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트라비포켓" 앱을 유용하게 썼는데, 나라별 폴더를 만들어 비용을 기록할 수 있고, 통화별 자동 환전도 돼서 편리했습니다.

저는 매달 리옹에서 사용할 생활비(2월~6월)와 각 나라별 여행경비를 따로 기록하며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교통>

교통수단은 크게 **버스, 기차, 비행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버스:** Flixbus, Blablacar 어플 사용
- **기차:** SNCF 어플 사용
- **비행기:** Skyscanner에서 가격 비교 후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구매

저는 창밖 구경을 좋아하고, 가장 저렴해서 버스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최장 12시간까지 경유 없는 야간버스를 타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허리도 아프고 지루했지만 자주 다니다 보니 적응되더라고요.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낭만 있는 경험이라

고 생각해 추천드립니다.

예: 리옹-독일 뮌헨 왕복 버스 56유로

단, 다른 교통수단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비교 후 예매하세요.

또한, 국제학생증 앱에서 Flixbus 할인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니 한국에서 국제학생증을 발급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Flixbus 주의사항:

환불금이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리옹 파견 마지막에 환불하면 바우처를 쓸 일이 없어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차(SNCF):

SNCF 앱으로 1달 구독권인 TGV MAX를 구독하고 0원표를 활용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TGV MAX는 한 달에 79유로여서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는 기차가 저렴하지 않아서 한 달에 리옹-파리만 한 번 왕복해도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까지 매달 TGV MAX를 구독하여 파리, 지베르니, 파리 디즈니랜드, 스트라스부르, 아스테릭스 파크 등을 다녀왔습니다! 0원표가 모든 여행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일요일 저녁시간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대에는 예매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옹-파리' 구간은 웬만하면 늘 0원표가 나왔고 TGV MAX의 본전을 확실히 뽑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여행을 다닐 수 있어서 구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TGV 주의사항:

TGV MAX 이용 시 주의하실 점은 기차를 탈 때 늘 여권을 가지고 다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TGV MAX 구독자들에 한해, 티켓 검사 시에 역무원이 늘 본인 확인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0원표가 무효화되고 원래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비행기의 경우, Skyscanner 어플을 이용해서 항공사별 가격을 비교한 후,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표를 예매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적은 없지만, 유럽 항공사의 경우 갑작스러운 항공편 취소와 같이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번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비교에는 다른 어플을 사용하시더라도 비행기 티켓만큼은 확실하게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예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

비행기 (Volotea 항공 이용 시) 주의사항:

비행기 관련해서는 Volotea라는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실 경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할 때, 조금 더 싼 가격에 10kg 기내수하물까지 포함되는 항공권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가격이 가장 싸다고 해서 제대로 보지 않고 결제해버리면 Megavolotea 라는 항공사 멤버십에 자동 가입되고 나도 모르는 새에 계좌에서 멤버십 금액 59.99유로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Megavolotea 무료 체험기간을 이용해 멤버십 혜택을 누린 후 다시 59.99 유로를 환불받는 식의 편법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 및 환불 조건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해서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환불기간을 넘겨 환불받지 못했습니다ㅠㅠ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 예매할 때부터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숙박>

저는 호스텔 1번, 호텔 2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행에서 에어비앤비 또는 한인민박을 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예매 어플로 Airbnb와 마이리얼트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여행 시에는 외식비가 만만치 않아 종종 마트에서 산 음식들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방 이용이 가능한 에어비앤비에서 숙박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이리얼트립' 어플을 이용하면 다양한 한인민박의 가격 및 리뷰를 비교한 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인민박은 대부분의 민박에서 한식 조식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고, 혼자 여행을 갔을 시에 같은 숙소를 쓰는 한국인들과 소통하며 동행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여행갔을 때 '덕구네 민박'이라는 한인민박에 머물렀는데, 숙소도 깨끗하고 조식도 맛있고 여러 방면에서 가장 만족한 한인민박이라, 혹시 바르셀로나에 가실 일 있다면 한 번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행지 추천>

마지막으로 여행지 추천입니다. 모든 여행지가 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모로코 (사하라사막 투어)

저는 어학원의 방학(2주)기간동안 10박 11일로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를 연달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가 저의 인생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모로코는 아무래도 통화부터 날씨, 문화까지 유럽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행 준비 과정이 가장 귀찮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유럽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로코 사하라 사막에 가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하라 사막 투어로 '핫산네 사막 투어'가 있습니다. 모로코 여행과 관련해서는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쉽게 여러 후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오전 사막투어를 이용했고, 1박 2일을 사하라 사막에서 숙박했는데 4시간 낙타 체험+아침/점심/저녁 제공+숙박비를 모두 합쳐서 45유로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가 25유로를 더 내면 사하라 사막에서 이론 자동차를 타는 체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으니까 꼭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사하라 사막 선셋포인트에서 석양 보기, 밤에 사하라 사막에 누워서 별 보기 등등 유럽에서는 할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어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2. 독일 (뮌헨-뇌르틀링겐)

두번째로 좋았던 여행지는 12시간 야간버스를 타고 다녀온 독일입니다. 저는 뮌헨과 뮌헨 근교의 소도시인 뇌르틀링겐을 다녀왔는데, 독일 특유의 깔끔한 거리와 독일 음식, 독일 맥주가 너무 좋았습니다. 뮌헨의 3대 유명 양조장 중 두 곳을 가봤는데, 맥주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으로 맛있어서 이를 체험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뮌헨에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근교인 뇌르틀링겐은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의 배경지여서 꼭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풍경과 똑같고, 진격의 거인 팬이 아니시더라도 마을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포르투갈 (포르토)

세번째로 좋았던 여행지는 포르투갈의 포르토입니다. 포르토는 정말 낭만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유가 넘치고 아름다웠던 곳입니다. 포르투갈 대표 디저트인 나타가 너무 맛있으니까 꼭 후회 없이 드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밤에 동 루이스 다리가 보

이는 곳에 올라가 보는 야경이 장관이고, 야경 포인트에는 늘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여행객들이 길거리에서 버스킹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낭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량상 최대한 제 감상을 절제해서 쓰고자 노력했는데, 이외에도 너무 좋은 여행지가 많았습니다. 여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느낀 바를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n030825@naver.com)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리옹 연수와 관련해서 학업 전반, 기숙사 생활 등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게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프랑스어 공부,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 유럽 여행 등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혼자 해외살이는 외롭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리옹에서 소중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